

손흥민, 유럽서 첫 우승 후 미국으로 전격 이적 '톱뉴스'

2025 스포츠 10대 뉴스

연합뉴스가 한국체육기자연맹 회원사 35개사를 대상으로 3·8일 진행한 올해 국내 스포츠 10대 뉴스 설문 조사에서 '손흥민, 유럽서 15년 만에 첫 우승 후 미국으로 전격 이적' 항목이 276점으로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했다. 2025년을 빛낸 한국 스포츠 10대 뉴스를 주요 사건과 함께 게재한다. <편집자주>

1 '무관' 꼬리표 떼고 '행복 축구' 시작

'월드클래스' 손흥민(33·LAFC)은 15년의 유럽 생활을 '첫 우승 트로피'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축구의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갔다.

2010~2011시즌 독일 함부르크에서 프로로 데뷔한 손흥민은 2015~2016시즌부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토트넘 홋스퍼에서 뛰며 굵은 족적을 남겼다.

2024~2025시즌까지 공식전 454경기를 뛰면서 EPL 127골, 국내 컵대회 19골, 유럽클럽대항전 27골을 넣고 도움은 도합 101개를 올렸다.

국가대표팀과 소속팀에서 우승과는 연을 맺지 못하던 손흥민은 지난 5월엔 토트넘의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에 앞장서며 '무관'(無冠)의 꼬리표를 떼어냈다.

허리에 태극기를 두른 손흥민은 주장 자격으로 우승 트로피를 번쩍 들어 올리며 토트넘과 아시아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장면을 만들었다.

여름 아시아투어를 끝으로 토트넘과 작별한 손흥민은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의 로스앤젤레스(LA) FC에서 '행복 축구'를 시작했다.

팀이 플레이오프 서부 콘퍼런스 준결승에서 패해 데뷔 시즌 우승은 이루지 못했으나 입단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는 동안 그라운드 안팎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산하며 미국 팬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2 프로야구 2년 연속 1천만 관중 흥행 폭발



지난해 국내 프로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단일 시즌 관중 1천만명을 넘긴 프로야구는 올해에도 '흥행 만루홈런'을 쳤다. 2025 KBO리그 정규시즌에 몰린 총관중은 1천231만2천519명으로 지난해 한 시즌 최다 관중(1천88만7천705명) 기록을 가뿐하게 뛰어넘었다.

프로야구 한 경기 평균 관중은 1만7천101명으로 역대 최다였고, 전체 경기수의 약 46%인 331경기가 매진됐다. 좌석 점유율은 무려 82.9%를 찍었다. 올해 프로야구는 100만명 단위 관중을 모두 역대 최소 경기로 달성하기도 했다.

프로야구 열기는 포스트시즌 때 절정에 달했다. 올해 열린 프로야구 가을잔치 16경기 표는 모두 팔렸다. 역대 단일 포스트시즌에서 전 경기 만원 관중이 들어찬 것은 2010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다.

3 한국축구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



한국 축구 대표팀은 올해 웬만한 축구 강국도 이루지 못한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지만,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대표팀에 대한 축구 팬들의 민심은 여전히 싸늘하다.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 들어 올린 손흥민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은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조 1위로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쥐며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11회 연속 본선 무대를 밟게 됐다. 1954년 스위스 대회를 포함해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이다. 또한 한국은 16년 만에 월드컵 예선 무패라는 대기록도 달성했다.

이런 성과에도 올해 4선에 성공한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축구대표팀에 대한 축구 팬들의 비판 여론은 계속되고 있다. 불투명한 협회 운영과 절차를 무시한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으로 축구 팬의 퇴진 압박을 받아온 정 회장은 4선 도전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지난 2월 축구인들의 압도적인 지지(유효투표의 85.7%)로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정몽규 나기'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여온 팬들의 축구협회를 향한 불신과 대표팀의 들쭉날쭉한 경기력은 결국 흥행 부진이라는 직접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4 프로야구 LG, 2년 만에 통합우승 축포



2023년 29년 만에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품었던 LG 트윈스가 다시 정상을 정복하는 데는 불과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2025시즌 정규리그를 1위로 마치고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LG는 플레이오프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제치고 올라온 한화 이글스를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LG는 2020년대 들어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두 차례 우승을 차지하며 '2020년대 최강팀'으로 자리매김했다.

1차전과 4차전에서 결승타를 때린 베테랑 김현수는 한국시리즈 타율 0.529, 1홈런, 8타점으로 활약해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계약 기간 3년 중 두 차례 통합 우승을 달성한 염경엽 감독은 역대 프로야구 사령관 최고 금액인 3년 최대 30억원에 LG와 재계약했다.

5 '탁구 영웅'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



2025년 한국 체육은 8년 만에 대한체육회의 수장이 바뀌는 굵직한 변화로 시작했다.

1월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탁구 영웅' 유승민 후보가 5명의 경쟁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올해 대한체육회장 선거엔 유 후보와 이기흥 당시 회장을 비롯해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강태선 서울시체

육회 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탁타크로협회 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를 합쳐 6명이 출마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한탁구협회장 출신의 유 후보는 총투표수 1천200표 중 417표를 획득, 2위 이기흥 전 회장(379표)을 제치는 대이변을 일으켰다.

유승민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체육계 변화'를 기치로 내걸고 특유의 근면함을 앞세워 바닥 표심을 공략한 끝에 2016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당선 못지않은 반전을 만들어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인 유 회장은 만 42세로 역대 최연소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는 최초로 대한체육회장에 올랐다.

6 새 역사 쓴 안세영, '황금시대' 활짝



BWF 월드투어 슈퍼500 호주오픈에서 여자 단식 최초 시즌 10승 신기록을 달성한 안세영에 우승 트로피에 입맞춤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은 올해 여자 단식과 남자 복식 종목에서 새 역사를 쓰며 '황금기'를 활짝 열어젖혔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삼성생명)은 지난달 23일 호주 시드니에서 막을 내린 BWF 월드투어 슈퍼 500 호주오픈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려 여자 단식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시즌 10승 고지를 밟았다.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한 안세영은 올 시즌 14개 국제대회에 출전해 10번 정상을 밟았다.

이는 2023년 자신이 세운 여자 단식 최다 우승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안세영은 당시 세계선수권대회와 8개의 BWF 월드투어 대회에서 우승했다.

지난 1월 처음 복식 조를 꾸린 남자복식 '황금 콤비' 서승재와 김원호(이상 삼성생명) 역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둘은 조 결성 불과 7개월 만에 세계랭킹 1위에 올랐고 올해 16개 대회에 출전해 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10개 대회에서 우승을 합작했다.

7 NC파크 구조물 추락...안전불감증 충격

올해 3월29일 창원NC파크에서는 다시 있어서 안 될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프로야구 경기 도중 무게 60kg짜리 구조물이 구장 밖에서 아래로 떨어져 여성 관중 3명을 덮친 것이다.

머리를 크게 다친 20대 여성은 치료받던 중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고, 다른 두 명도 부상으로 치료받았다.

즐거운 마음으로 야구를 보러 왔던 관객이 야구장 시설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 사건은 야구계에 큰 충격을 줬다.

KBO 사무국은 4월1일부터 3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4월1일 열릴 예정이던 KBO리그 경기 및 퓨처스(2군) 리그 경기를 모두 취소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모두 응원을 자제했고, 국내 프로스포츠 단체는 일제히 애도 성명을 냈다.

창원NC파크는 긴급 정밀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NC 선수단은 여파로 두 달이나 홈구장에서 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또한 KBO리그 다른 구장도 안전 점검을 진행하는 등 경기장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8 김연경 화려한 피날레...현대캐피탈 트레블



'배구 여제' 김연경이 은퇴 시즌 소속팀 통합우승으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고, 남자부 현대캐피탈은 3관왕에 오르며 명가(名家) 부활을 알렸다.

김연경은 2024~2025 정규리그가 한창이던 2월13일 소속팀 흥국생명의 홈경기가 끝난 후 수훈 선수 인터뷰에서 전격 은퇴를 선언했다.

한국배구연맹과 각 구단은 김연경의 '라스트 댄스'를 기념하는 은퇴 투어를 열어 레전드를 예우했다. 6년 만에 흥국생명에 통합우승을 선사한 김연경은 역대 두 번째로 만장일치 챔피언 최우수선수(MVP)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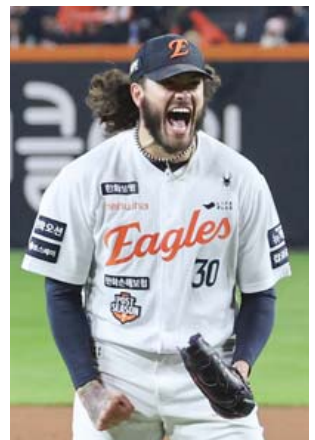
그는 4월14일 V리그 시상식에서도 만장일치로 여자부 정규리그 MVP를 수상하며 찬란했던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남자부 현대캐피탈은 컵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정규리그 1위와 챔피언 우승을 독식하며 구단 사상 첫 트레블(3관왕)을 달성했다.

남자부 3관왕은 2009~2010시즌 삼성화재, 2022~2023시즌 대한항공에 이어 역대 세 번째일 정도로 대단한 기록이다.

또 현대캐피탈의 통합우승(정규리그 1위·챔피언 우승)은 2005~2006시즌 이후 무려 19년 만의 경사였다.

9 폰세, 19년 만의 한화 출신 MVP 등극



2025 프로야구는 한화 이글스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31)의 독무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막 이후 선발 최다 연승(17연승) 신기록을 세우는 등 정규시즌 29경기에서 17승 1패, 평균자책점 1.89, 252탈삼진을 기록했다. 승률(0.944), 다승, 평균자책점, 탈삼진 투수 부문 4개 타이틀을 독식했다. 2021년 아리엘 미란다(당시 두산 베어스)의 단일 시즌 최다 탈삼진(225개) 기록을 훌쩍 넘겨 외국인 투수 최초로 4관왕에 올랐다.

폰세는 시즌 종료 후 각종 트로피를 쓸쓸이했다. KBO리그 최우수선수(MVP), 최동원상, 투수 부문 골든글러브, 여러 언론사의 상을 거머쥐었다.

한화 선수가 정규리그 MVP에 선정된 건 2006년 류현진 이후 19년 만이다.

강렬한 인상을 남긴 폰세는 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계약기간 3년, 총액 3천만달러(443억원)에 계약했다.

10 '포켓매직' 전북 4년 만에 우승 탈환

2025시즌 프로축구 K리그에서 전북 현대가 화려하게 부활했다. 전북은 지난 10월 하나은행 K리그1 2025 33라운드 홈 경기에서 조기 우승을 확정했다.

울산 HD의 3연패를 멈춰 세우고 4년 만의 K리그1 챔피언에 복귀한 전북은 이로써 K리그 역대 최초로 10번째(2009, 2011, 2014, 2015, 2017, 2018, 2019, 2020, 2021, 2025) 우승 별을 따내며 K리그 최강팀의 자리에 다시 올랐다.

거스 포켓 전북 감독은 지난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PO)까지 내몰렸던 전북을 한 시즌 만에 챔피언으로 탈바꿈시켰다.

전북은 5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전부터 26라운드 대구FC전까지 17승 5무로 무려 22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내전진에 코리아컵까지 '더블'(2관왕)을 이뤄냈다. <연합뉴스>